

완주마을 이야기 Since 2012

제162호

2026년 2월호

## 완주 아이들의 겨울나기

어린이집 졸업을 앞둔 다섯 살 쌍둥이, 카페 앞치마를 두른 채 어엿한 사회를 경험하는 우주 등 완주의 아이들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저마다의 빛깔로 단단하게 영글어 간다. 산골과 읍내를 누비며 겨울을 나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방학 일기를 전한다.

관련 기사 2-10면

사진설명: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 아이들이 얼음썰매를 타고 있다.

• 맛있고 행복한 떡국 한 상 ..... 11P

• 동심면교육공동체

..... 12P

• 책의풍경 박일진 이야기 ..... 14P

• 고산 디지털카메라 촬영팀

..... 16P





완주 아이들의

# 겨울나기

## 따로 또 같이, 매일매일 쑥쑥!

찬 바람이 여전한 가운데 때때로 새봄의 기운이 꿈틀대는 2월, 완주의 청소년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특별한 겨울방학의 한 페이지를 채워가고 있다. 은빛 얼음판 위를 가르며 우정을 쌓고, 스스로의 공간을 닦으며 내일의 성장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시간은 추위마저 잊게 할 만큼 뜨겁다. 산골 마을부터 읍내 아지트까지, 완주라는 커다란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놀며 한 뼘 더 자라난 아이들의 생생한 겨울방학 중 하루를 들여다 보았다.

### 썰매 얼음썰매 타는 날

손발을 푹푹 얼릴 정도로 공기가 차가웠지만 동상면 밤티마을 얼음썰매장에는 즐거운 소란이 일었다. 지난 1월 23일 오후, 동상초등학교 학생들과 인근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 아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얼음 위를 마음껏 누볐다.

이날 처음으로 얼음썰매를 접한 동상초등학교 6학년 백은서 어린이는 썰매의 매력에 푹 빠진 모습이었다. 눈을 반짝이며 얼음을 찍어 나가는 손길은 서툴렀지만 거침이 없었다. 은서는 “처음에는 얼음 위라 미끄러워서 살짝 무서웠는데, 계속 타다 보니까 순식간에 앞으로 움직이는 게 정말 재미있다”며 웃었다.

이렇게 서로의 썰매를 사이좋게 이끌어주다가도, 누가 가장 빨리 가는지 시합할 때에는 모두 진지하게 경주에 임했다. 차가운 얼음판 위에 피어난 아이들의 웃음과 열정은 산골 마을의 추위를 녹이기에 충분했다.

### 청개구리들의 활기찬 아지트 단장

산골의 얼음판이 아이들의 놀이터였다면, 2월 7일 삼례 완주군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자신

썰매는 남이 끌어주는 게 제일! ㅎㅎ



썰매타기에 푹 빠진 농촌유학센터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의 놀이터 아이들



의 공간을 일궈내는 자치의 현장이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개구리' 위원들이 서서히 다가오는 새봄을 앞두고 자신들의 아지트를 직접 청소하기 위해 뭉쳤다.

창가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 아래, 학생들은 익숙한 손길로 가구를 옮기고 구석구석을 닦아내며 공간에 숨을 불어넣었다. 열심히 청소하다가 지치면 간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게시판 속 지난 활동 사진을 보며 깔깔 웃기도 했다. 서로의 추억을 공유하며 '청소년이 주인인 공간'을 직접 가꾸는 모습에서 싱그러운 에너지가 전해졌다.

**모두의 놀이터엔 경찰놀이+소꿉놀이가 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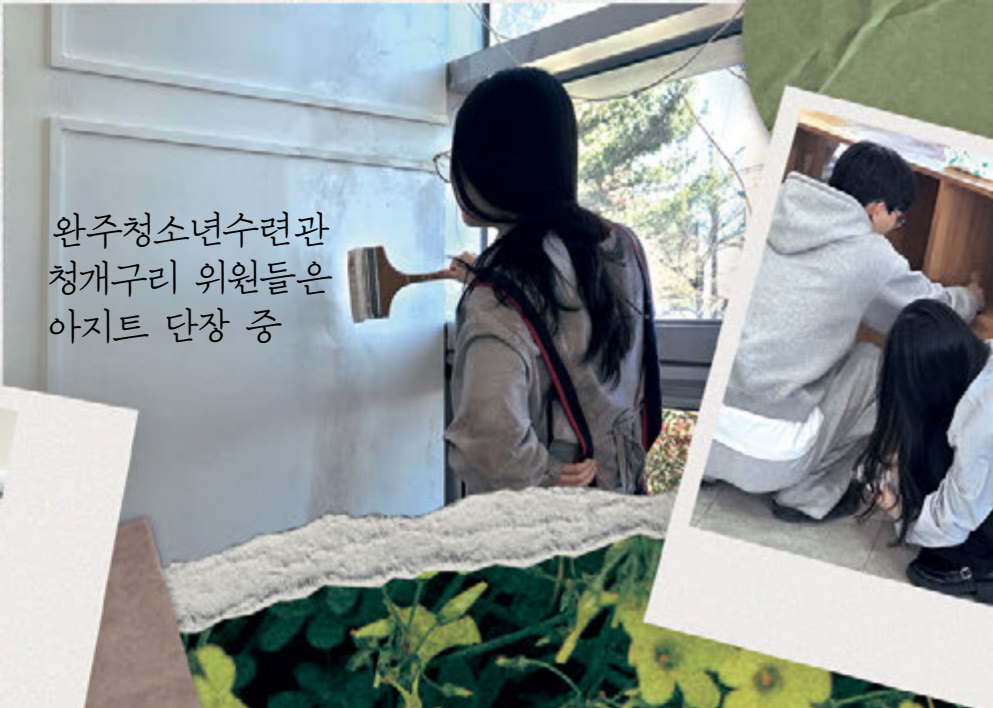
동상과 삼례를 지나 발길이 닿은 곳은 고산의 '모두의 놀이터'다. 이곳에선 삼우초 2학년 최단비, 김우주, 이시안 어린이가 손님 맞이 소꿉놀이에 한창이었다.

우주가 고깔콘을 뒤집어 물을 길어오면, 단비와 시안이 흙에 부어 정성껏 반죽해 컵에 담아냈다. 조심스레 컵을 뒤집어 뺀 뒤 알록달록한 돌과 말린 나뭇잎으로 장식하니 근사한 흙 초코케이크와 푸딩이 완성되었다. 아이들의 고사리손

끝에서 빚어진 달콤한 상상력이다. 우주가 정성 가득한 케이크와 컵을 함께 건네며 "코코아는 서비스예요!"라고 장난스럽게 외쳤다.

점심을 먹은 뒤 아이들은 운동장으로 나와 마음껏 뛰어놀았다. 한새론, 김우주, 홍지담을 포함한 총 14명의 아이들은 따사로운 햇살 아래 운동장을 가르며 경찰과 도둑 놀이에 흠뻑 빠졌다. 친구를 잡으러 달려가고, 숨을 곳을 찾아 재빨리 몸을 숨기며 뛰는 모습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경찰 역할의 지담이 잠시 멈춰 새론을 기다려주자, 도둑 역할을 하던 새론은 숨죽이며 웃음을 참았다. "잡히면 안 돼!"라고 속삭이듯 외치며 숨는 새론 뒤를 지담이 "거기서 안 돼!"라며 달려가 따라붙었다. 뛰고, 숨고, 또 달리는 반복 속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움직임을 살피고 협동하며 전략을 배우고 있었다.

소꿉놀이와 운동장 놀이가 어우러진 고산의 겨울날, 아이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놀이터를 가득 메우며 따뜻한 추억을 쌓아갔다.



완주청소년수련관 청개구리 위원들은 아지트 단장 중



## 아라의 방학 사용법

방학 설계자 예비 6학년 김아라

today's goal : 신메뉴 맛 평가하기

### 주요 일과

- ✓ 동생 어린이집 등하원 챙기기 □
- ✓ 동네 문카페 일손 돕기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부 □



동생 하원길 마중나온 아라

청소년에게 겨울방학이 쉽이 아닌 성장의 시간이듯 초등 학생에게도 방학은 또 다른 도전의 계절이다. 삼우초 예비 6학년 김아라(13)의 겨울은 동네 '문카페'에서 시작된다. 문카페에서 만난 아라는 또래보다 한 뼘은 더 단단해 보였다. ENFJ답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적극적이다. 이야기하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듣고 또박 또박 자기 생각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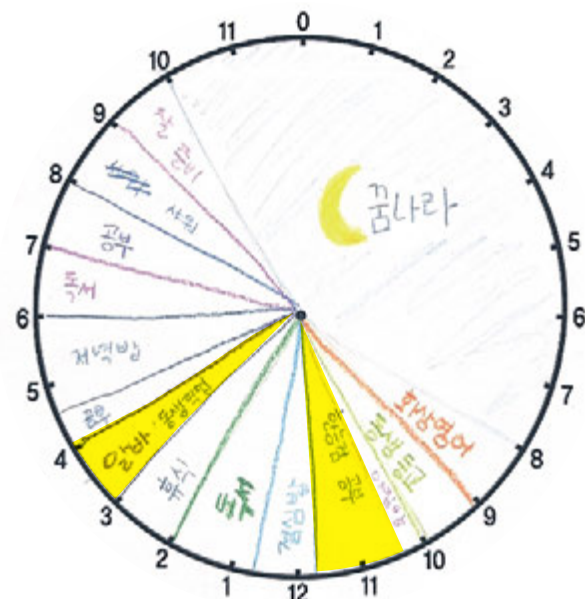
아라는 방학이면 문카페를 돕는다. 여름에는 일주일에 두 세 번, 겨울에는 한두 번. 평일 위주로 2년째 이어오고 있는 일이다. 정식 아르바이트라기보다는 사장님을 돕는 일에 가깝다. 대신 사장님은 고마운 마음으로 하루 천 원을 용돈으로 준다. 먹고 싶은 음료 한 잔도 함께다. 아라의 최애는 휘핑크림을 듬뿍 올린 초코라떼. '알바생 특혜'라며 웃는다. 시그니처로 나가는 음료를 서비스용으로 포장하는 일도 맡는다. 신메뉴가 나오면 가장 먼저 맛보는 기회도 얻는다. 손이 빨라졌고 손님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사장님은 "아라랑 대화가 잘 통해서 좋다"고 말한다.

카페 한편에는 모아둔 우유팩이 쌓여 있다. 아라는 그걸 정리해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휴지로 바꿔온다. 그 휴지는 카페에서 쓰고 친한 할머니께도 나눈다. 작은 일 같지만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이다.

하루 일과도 제법 야무지다. 오전 10시 고산 어린이집까지 걸어서 동생을 데려다준다.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차려둔 점심을 데워 먹는다. 받은 천 원은 통장에 저금하거나 부



일주일에 한두 번 카페 일손을 돕는 아라



모님 생일 선물을 사는 데 쓴다.

다가오는 방학 목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 아라는 오늘도 스스로 정한 계획표를 하나씩 채워가고 있다.📅

# 우주의 방학 사용법

고산중학교 김우주

today's goal : 밴드 '루시'의 노래 마스터

## 주요 일과

- ✓ 보컬 연습... 연습... 또 연습! □
- ✓ 목관리에 신경쓰기 □
- ✓ 고래밴드 올시즌 연습 마무리 □



고래밴드와 우주

고산중학교 김우주(15)의 겨울방학은 연습실에서 시작된다. 우주는 청소년센터 고래에서 활동하는 '2팀 고래 밴드' 보컬이다. 방학이 시작된 12월 31일 이후 일정은 자연스럽게 연습 중심으로 돌아갔다. 정식 레슨을 네 차례 받고 이후에는 합주로 이어졌다. 다음 주면 이번 시즌 연습이 마무리된다.

“보컬이 생각보다 더 어려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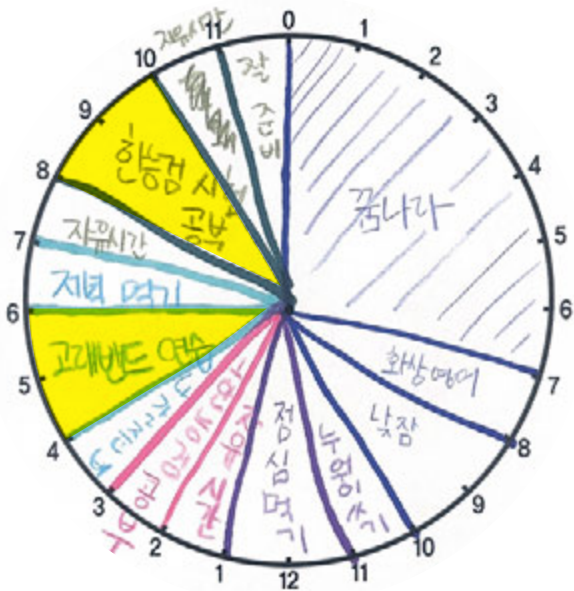
처음에는 신나는 곡을 해보자고 정했다. 하지만 막상 연습을 시작하니 음이 예상보다 높았다. 높은 음을 안정적으로 내기 위해 호흡을 반복해 맞추고 목 관리에도 신경을 쓴다. 현재는 밴드 '루시'의 노래를 연습 중이다. 영상으로 악보를 찾아보고 여러 번 들으며 음을 짚는다. 혼자 있을 때도 이어폰을 끼고 반복해 부른다. 밴드 동아리 개인 연습 시간 역시 보컬 파트를 다듬는 데 쓴다.

고래 밴드는 베이스, 드럼 두 명, 일렉기타, 피아노, 그리고 보컬로 구성됐다. 각자의 소리가 모여 한 곡을 완성한다. 목표는 고산 단오맞이 공연 무대다.

합주 날이면 드럼이 박자를 잡고 베이스가 리듬을 받친다. 기타와 피아노가 멜로디를 채우면그 위에 우주의 목소리가 얹힌다. “공연 전까지 더 맞춰보려고 해요. 연습은 계속하고 있어요.” 우주는 청소년센터 고래에서 고래청소년위원회 9기 서기로도 활동 중이다.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기록을 정리한다.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지만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방학은 쉬는 시간이기보다 스스



고래밴드와 보컬연습 중인 우주



로 채워가는 시간에 가깝다.

겨울방학 교실 대신 연습실에서 보내는 시간. 한 번의 무대를 위해 우주의 하루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공)





어린이집 졸업반 다섯 살 쌍둥이 박에서, 박예준

## 같이 놀고 먹고 심심하지 않아요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겨울, 박에서·박예준 쌍둥이는 곧 유치원으로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

2월 6일 오후 삼봉의 한 가정집. 하원을 마치고 돌아온 다섯 살 박에서·박예준 쌍둥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섰다. 어린이집에서의 하루가 끝나고 집에서의 시간이 다시 시작됐다.

잠시 후 두 아이는 식탁에 나란히 앉아 계획표를 그리기 시작했다. 아직 한글이 서툴지만 예서는 연필을 꼭 쥐고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옆에 앉은 예준도 따라 써보겠다고 연필을 들었다. 모양은 조금 달랐지만, 두 아이 모두 이름을 적는 데 집중했다.

이어 예서는 어린이집에서 만든 졸업 케이크 모형을 꺼내 보이며 “졸업 케이크 만들었어요. 저는 핑크색이에요”라고 말했다. 예준도 자신의 케이크를 들어 보였다. “저는 파란색이에요.” 색은 달랐지만 졸업을 앞둔 마음만큼은 같았다.

이후 거실 바닥에 그림책을 길게 세워 기차길을 만들었다. “기차길처럼 길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지나다니면 재밌어요.” 서로 번갈아 책 위를 밟으며 몇 번이고 오갔다. 예서는 그 사이 ‘티니핑’ 이야기를 꺼내며 “이건 다이나핑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놀이가 이어진 뒤 저녁상에는 자장면이 올랐다. 두 아이는 나란히 앉아 젓가락을 들고 면을 집어 올렸다. 흘림 없이 한 그릇을 비워냈다.

해가 기울어도 집 안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어린이집에서 시작된 하루는 집 안 놀이와 저녁 식탁으로 이어졌고 다섯 살의 하루가 또 한 장 쌓였다.



하루 일과표를 만들고 기차놀이를 하거나 어린이집 등원버스를 기다리며 눈을 뭉치고 노는 쌍둥이들

오늘 저녁밥은  
남남 자장면 ㅎㅎ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청개구리' 박정환, 김은율

## 서울시립 문래청소년센터, 곧 만나러 갈게요!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청개구리' 제9기로 활동 중인 박정환 전 위원장과 김은율 현 위원장

완주 청소년들에게 겨울방학은 멈춤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활기가 싹트는 계절이다. 그 중심에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수련관을 만들기 위해 뭉친 청소년운영위원회 '청개구리'가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그리고 3개 분과(소통·기획·홍보) 위원들까지 총 10명이 활동하는 '청개구리'는 평일에는 학업에 집중하고, 토요일마다 모여 지역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자치 기구다.

6년 차 베테랑 활동가 박정환(고산고 3학년) 학생은 청소년수련관과 '청개구리'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학교가 끝나면 집에만 머물던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이제는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든든한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의 시선에서 불편함을 고쳐나가고 싶어 시작했다"는 정환 학생은 3년 전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통해 수련관 내에 공부 공간을 직접 만든 경험을 최고의 보람으로 꼽았다.

현 위원장인 김은율(한별고 2학년) 학생 또한 "소심했던 성격이 120도 변했다"고 웃었다. 직접 점자라벨 그림동화책을 만들어 도서관에 기부하는 동아리 '손끝으로 보는 동화'에서 활동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을 배운 덕분이다.

이외에도 직접 배운 수어 노래 부르기, 하룻길 응원과 수능 응원 등 '청개구리'는 다양한 자체 프로젝트를 통해 삼례를 넘어 완주 곳곳에 다정함을 뿌리고 있다.

특히 이번 방학에는 2월 말 예정된 서울 시립문래청소년센터와의 교류활동 및 워크숍을 준비하며 설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은율은

### 주요 일과

- ✓ 서울시립 문래청소년센터와 교류활동+워크숍 준비 □
- ✓ 배우고 익히는 선후배간 청소년활동 비법 교류 □
- ✓ 청개구리 아지트 새단장 □

위원장으로서는 행사 기획부터 진행 전 최종 점검까지 꼼꼼히 챙기는 중이다.

"이번 교류활동은 다른 지역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며 우리 시야를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거예요. 또 올해 기수의 청개구리 위원들과 서로 웃으며 즐겁게 의견을 나누는 멋진 워크숍을 만들고 싶어요."

정환이는 위원장을 도와 그동안 쌓아온 소중한 경험들이 후배들의 마음에 잘 스며들도록 아름다운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한편, '청소년지도사'라는 자신의 꿈을 향해 차근차근 걸어가려고 한다. 은율도 그런 정환 선배를 롤모델 삼아 "만능 재주꾼인 선배의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누군가에게는 학교처럼 배움을, 누군가에게는 놀이터처럼 쉼을 주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청개구리' 활동은 이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힐링이자 성장의 기회다. 가구 교체부터 노래방, 공부 공간 조성까지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내 실질적인 변화를 일궈내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들의 다정하고 활기찬 발걸음 덕분에 완주의 청소년 공간은 오늘도 진정한 아지트로 쭉쭉 자라나고 있다. 🌱



# 하임이의 하루

태어난 지 167일 5개월 김하임

today's goal : 분리수면

### 주요 일과

- ✓ 먹고, 잠들고, 놀고 □
- ✓ 신나게 목욕 □
- ✓ 그림책 보며 엄마랑 교감하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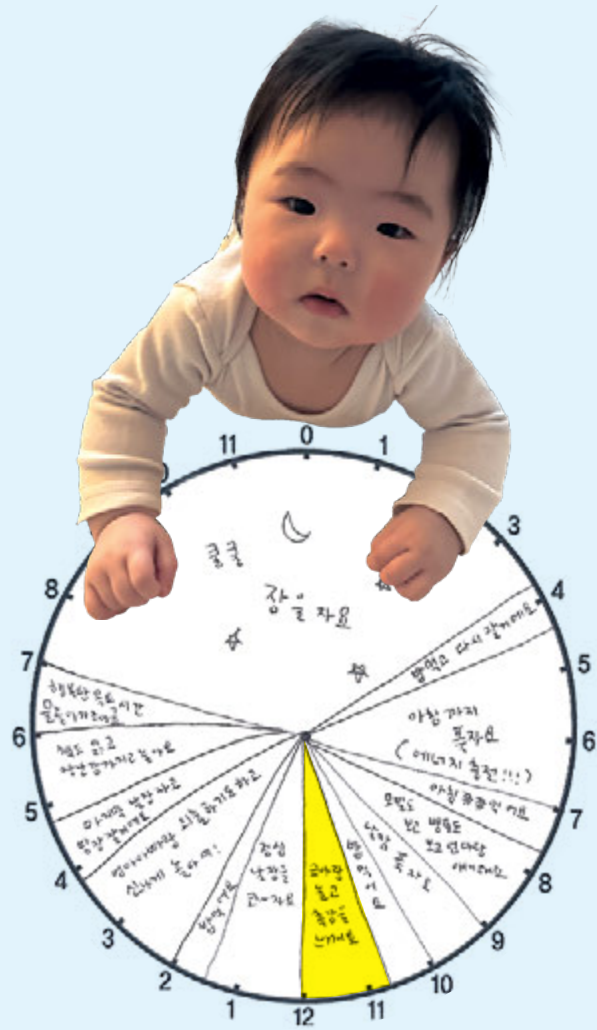
하임이가 좋아하는 '코야' 책

2월 9일 월요일 오후, 이서면의 한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167일 된 하임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임이는 낯선 기척에도 아랑곳없이 웃음부터 보였다. 김하임의 겨울은 '쉽'과 '깨어 있음'이 번갈아 이어지는 하루의 반복으로 채워진다. 학교도 방학도 아직은 먼 이야기지만, 하임에게도 분명한 하루의 리듬은 있다.

하임의 하루에는 뚜렷한 구분선이 없다. 먹고, 잠들고, 다시 눈을 뜨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낮 동안 지는 시간은 총 3~4시간.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까지 이어지는 낮잠 사이사이 하임은 두 시간가량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본다. 천장 너머의 빛과 옆에서 오가는 목소리, 손에 닿는 촉감 하나하나가 지금의 하임에게는 하루의 중요한 사건이다.

가장 오래 시선을 붙잡는 건 '코야' 책이다. 책을 펼치면 하임의 얼굴이 먼저 반응한다. 이유 없이 웃음이 터지고, "헤헤" 소리가 방 안에 번진다. 이제는 몸을 뒤집으며 스스로의 움직임을 탐색하는 시기다. 아직 말은 없지만 웅얼이는 제법 또렷하다. 분유를 먹을 때면 엄마 품에 안겨 우유통을 꼭 쥐고, 얼굴로 먼저 반응한다. 하임이는 표정과 몸짓으로 자신의 하루를 만들어간다.

하임이 엄마 이슬아 씨는 "다음 주부터는 이유식을 시작



해보려고 한다"며 "먹는 게 달라지면 하임이 하루도 조금씩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녁 여섯 시가 가까워지면 이 시간은 하임이가 가장 좋아하는 목욕 시간이다. 슬아 씨는 "하임이가 하루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목욕할 때"라며 "물에 들어가면 표정이 바로 풀린다"고 말했다. 백 일을 지나며 분리수면도 시작됐다. 혼자 잠드는 연습은 하임이의 겨울밤을 조금씩 넓혀주고 있다.

하루의 끝을 맞이하며, 5개월의 하임이의 겨울도 자신만의 리듬 속에서 이어진다. 🍵

## 완주미래행복센터, 세대 어우러진 설맞이 나눔 행사 맛있고 행복한 떡국 한 상

설을 앞두고 포근한 햇살이 감돌던 2월 12일 점심시간 완주미래행복센터가 정겨운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설 명절을 맞아 센터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떡국 나눔 행사에 상삼마을 어르신들과 모두의놀이터 아이들이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완주미래행복센터는 2003년 폐교한 삼기초등학교를 활용해 조성된 공간이다. 1946년 마을 주민들의 힘으로 세워진 삼기초등학교는 약 80년의 시간을 품고 있는 곳으로 상삼마을 어르신들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날 센터에서 준비한 떡국은 약 100인분.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우려낸 육수에 떡과 고명을 얹어 한 그릇씩 차려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떡국이 식탁 위에 놓이자 어르신들은 “보기만 해도 맛있겠다”며 젓가락을 들었다.

이영미 완주미래행복센터장은 “작은 한 그릇의 떡국에 따뜻한 마음과 새해의 안부를 담으려 했다”며 “명절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이런 자리를 통해 마을의 정이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떡국을 맛본 어르신들의 반응도 밝았다. 한 어르신은 “명절이면 가족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챙겨주니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아이들 웃는 소리 들으며 먹으니 더 맛있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아이들 역시 “떡국에 떡이 쫄깃해서 맛있었다”고 연신 감탄했다.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나누는 떡국 한 그릇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새해 인사가 됐다.

식사를 마친 뒤 센터는 어르신들께 명절을 잘 보내시라는 의미를 담아 수건을 선물로 전달했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선물까지 챙겨주니 더 고맙다”며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설을 앞두고 열린 이날 나눔 행사는 떡국의 온기만큼이나 따뜻한 공동체의 정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떡국을 기다리는 상삼마을 어르신들과 모두의놀이터 아이들

아이들  
웃는 소리 들으니  
더 맛있었지~





마을 얼음썰매장에서 아이들의 썰매를 끌어주는 박영환 씨

## 동상면 아이들이 다 우리아이죠

### 동상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 동상면교육공동체

동상면의 깊은 산세 아래, 아이들의 꿈을 함께 가꾸는 이들이 있다. 동상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동상면교육공동체'다.

3년 전, 네 가족으로 소박하게 시작한 이 모임은 이제 다섯 가구, 총 21명(학부모 10명, 자녀 11명)의 대가족이 되어 동상면 교육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동상면 밤티마을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며 동상면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 활동 중인 박영환 씨를 만나,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어떻게 함께 키워내고 있는지 그 따뜻한 여정을 들여다봤다.

#### ■ 학교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를 아이들의 놀이터로

동상면교육공동체의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상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네 가족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며 손을 맞잡은 것이 계기였다.

현재 동상초등학교 전교생은 20여 명 남짓인데, 그중 70%가 농촌유학센터를 통해 온 친구들이다. 농촌유학센터가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동상면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학부모들은 그들만의 또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박영환 씨는 "농촌유학센터는 센터대로 열심히 역할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 사는 아이들끼리 한번 뭉쳐보자는 마음이었다. 학교나 센터가 미처 다 채워주지 못하는 문화적 갈증을 우리 부모들의 힘으로 직접 풀어주고 싶었다"며 교육공동체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의 활동은 학교 담장을 훌쩍 넘는다. 아이들을 데리고 전주나 광주로 나가 축구와 야구 경기를 직관하며 스포츠 문화를 즐기다가 하면, 완주미디어센터에 직접 요청해 마을 한복판에서 영화 상영회를 열기도 했다. 때로는 재향군인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안보 현장 견학을 주관하는 등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부지런히 넓혀왔다.

센터나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학부모들이 기꺼이 재능 기부에 나서 일손을 돕는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유학생과 원주민 자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품는 것이 이 공동체의 철칙이다.

#### ■ 썰매장부터 장학금까지, 사비 털어 일군 진심

밤티마을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운영하는 박영환 씨의 열정은 공동체 활동에서도 빛이 난다. 얼마 전에는 마을에 얼음썰매장을 준비해 농촌유학센터와 동상초 아이들을 초대했다. 인솔 교사와 마을 어른들이 직접 썰매를 끌어주며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선물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때로 부모들의 사비가 투입되어야 할 만큼 고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이가 없다.

"야구 보러 광주 한 번 가려면 가족당 참여비를 모아야 하고, 사업비가 한정적일 땐 식사비나 간식비를 따로 걷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한테 주는 거니까요. 돈이 들고 몸이 버거울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다 보람으로 돌아와요."






동상면교육공동체 학부모들은 전주나 광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축구와 야구 경기를 직관하며 스포츠 문화를 함께 즐긴다.

부모들의 진심은 나눔으로도 이어진다. 지난해에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중 동상초 졸업생이 나오자 부모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러한 진심 덕분에 처음 네 가족으로 시작했던 모임은 지난해 한 가족이 더 합류하며 다섯 가구, 학부모 10명과 자녀 11명이 어우러진 든든한 울타리로 성장했다.

이제 이들은 ‘동상초 학부모 모임’을 넘어 동상면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공동체를 꿈꾼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아이들이 이 마을 안에서 교육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활동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박영환 씨는 “기준에 하는 것을 잘 유지하면서도, 초등학교 이후의 과정까지 넓혀서 동상면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공동체로 자리 잡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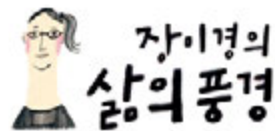
원주미디어센터와 협업한 영화 상영회



# 그저 산 사람이 되고 싶었던 소자(小子)



화산면 화월리에 있는 소막에서 키우는 소들 앞에 선 일진 씨



## 화산면 라복마을 박일진 이야기

1월의 새벽 6시. 집을 나선다. 까마득한 어둠을 뚫고 화산면 라복마을로 향한다. 간간이 눈발이 흩날리다가 산 언저리 하늘 끝이 까만색에서 쪽빛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일 테다.

화산면 화월리에 박일진, 정현순 부부가 일하는 소막이 있다. 60마리 정도가 살 수 있는 규모지만 소들 편하게 지내라고 30마리만 키우고 있다. 사람 밥 먹기 전 소밥 먼저 챙긴다. 순한 소들은 낮선 이가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콧감을 내뿜으며 식사를 하고 있다.

오랜 시간 합을 맞춰 일한 부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다. 매일 반복되는 노동은 그들에게 고요한 명상에 가깝다.

완주에서 '박일진'이라는 이름은 유명한 이름이다. 현재 완주한우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며 완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농축산업 전문가이다. 부인 정현순 씨 또한 1990년대 광주 발산교회를 중심으로 빈민탁아를 실천하며 '우리동네아기둥지'를 운영해, 광주·전남 지역 탁아소 연대인 광주지역탁아소연합 결성의 한 축을 담당한 인물이다. 한 시절을 뜨겁게 살아낸 정현순 씨는 이제 단순하고 조용한 삶을 즐기고 있는 터라 슬그머니 뒤로 빠지며 박일진 씨를 앞세운다. 이들 부부는 처음 만났을 때의 별칭으로 서로를 부른다. '달남'과 '소자'.

'소자'는 가장 작고 보잘 것없는 존재를 뜻하며, 더 낮아지기 위해 박일진(1968년생) 씨 스스로 붙인 별칭이다. 이 글은 그가 어떤 연유로 이러한 별칭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이 왜 직함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버텨온 시간으로 설명되어야 하는지를 따라가는 이야기다.

### 월출산 타잔 시절

"전남 영암 월출산 중턱 암자에서 태어났어요. 할머니가 스님은 아니셨지만 중간 경계에 있는 분이셨죠. 득도를 하셔서 할머니를 따르는 신자들이 많았어요. 소문에 의하면 할머니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학이 내려와서 할머니를 날개로 덮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일종의 설화라고 해야겠죠. 그런 소문이 마을로 퍼져나갔고 상담할 일 있으면 자문도 구하고, 아픈 사람 치료도 하고 복도 빌어주시면서 그 자리에 동네 분들이 암

자를 지어주셨죠. 그곳에서 대식구가 살았어요. 할머니 시봉하는 보살님들, 큰아버지 식구 여섯, 우리 식구 여섯, 거의 스무 명 가까이 모여 사는 공동체였죠. 저는 그 암자에서 태어나서 10살 까지 살았어요. 무슨 암자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불당에서 놀았던 기억들은 나요. 숨바꼭질 한다고 부처님 불상 뒤에 숨어있던 기억. 아무나 못 들어오던 곳이었지만 저에게는 그곳이 놀이터였으니까요. 저는 어린 시절을 타잔처럼 살았어요. 산을 엄청 빠르게 탔어요. 일상이 산을 타는 것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 산타고 나무해오고 그런 것에 너무 익숙했죠. 월출산이 바위산이라 바위 위를 폴짝폴짝 뛰어서 올라가고 폴짝 뛰어서 내려오는 것이 몸에 배서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산과 관련해서는 두려움이 거의 없었죠.”

박일진 씨의 할머니는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치 마고할매와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이 찾아와 시주를 하면 할머니는 그 돈을 어려운 이들에게 되돌려 주곤 했다. 9살 어린아이는 많이 가진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늘 어려운 이를 돕고 개미 한 마리도 밟지 않으려 땅을 보며 천천히 걷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자세다. 그는 태어나서 10살 때까지 자란 그곳에서 자신의 가치관, 성향이 갖춰진 것 같다고 말한다.

**광주에서 보낸 뜨거웠던 20대**

열 살이 되던 해, 부모님과 네 형제는 산 아래마을로 독립하게 된다.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암자를 떠났지만, 그때부터 빈곤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네 형제 중 장남이었던 박일진 씨는 부모의 바람대로 공부를 곧잘 했으나, 대학까지 진학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져 방황하던 시기도 있었다. 고3 겨울방학 무렵, 돈을 벌기 위해 난생처음 서울로 향했지만 대도시의 삶은 혹독했다. 결국 한 걸음 물러서 1년간 재수한 끝에 조선대학교 생물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하필이면 입학하던 그때가 1987년이었죠. 처음에는 공부만 열심히 해서 전액 장학금 받으면서 1학년을 다녔어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학생운동에 걸려든 거지. 그 당시 총장이 독재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 불만이 쌓여 있었고, 체육대 학생들을 동원해서 폭력으로 진압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계기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거죠. 제가 그 당시 1학년 과대표였는데 선배들이 아들 다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고 나갔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죠. 거기에 내가 맞들린 거예요. 각 학과 학년 대표자



위부터\_ 이른 아침 어둠 속에서 명상하듯 일하고 있는 박일진 정현순 부부, 조선대 1988년 1.8항쟁 당시 대학본관 건물에서 농성 중인 학생들 (조선대 자료사진), 월출산 전경(사진출처 위키미디어)

들이 모여서 농성해야 한다는데 어차피 자취방 가서 밥해먹기도 귀찮은데 같이 어울려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학교에서 농성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친구들이랑 선배들이랑 함께 있는 것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해 겨울쯤 되니까 다른 학과 선배가 와서 학내 민주화투쟁만 가지고는 안된다, 군사정권에 저항해야 한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또 마음이 뜨거워 지더라고요. 어찌하다 선배의 꼬임에 빠져서 이 길에 들어선 거죠. 1988년 1월 8일 새벽 학교 농성장에 자고 있는데 경찰들이 진입해서 우리를 잡으러 왔죠. 끌려가서 구류 7일 살고 나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경찰에 끌려갔던 거죠. 그러고 나왔더니 영웅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조폭세상이랑 비슷해요. 별 달고 나오면 대접 받듯이.”

스무 살 청년들의 뜨거운 마음은 쉽게 식지 않았다. 그러나 눈앞을 스쳐 날아다니는 직격탄과 백골단의 살기가 두렵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스스로 신조가 ‘비겁해지지 말자’인데 가급적이면 도망가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전경들이 뒤에서 쫓아오면 사람들을 앞으로 보내고 가장 후발대에서 뛰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제가 엄청나게 싸움 잘하고 겁도 없는 줄 아는데 저는 정말 겁이 많아요. 다만 내 장기가 남들보다 달리기 빠르죠. 제가 월출산 타잔이잖아요. 그래서 전경들이 바로 뒤에서 쫓아와도 안 잡힐 자신이 있었지. 이제는 좀 잡히고 싶은데 나를 못 잡더라고요.”

이후 투쟁위원장을 맡던 중 전국수배령이 내려졌다. 전국에서 열세 명이 수배 대상이 되었고, 그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다. 약 1년간 숨어 지내다 1991년 9월, 결국 자진출두했다.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영삼 정권 시절 사면을 받아 복역 2년 4개월 만에 세상으로 나왔다. 감옥에서 그가 꿈꾸던 세상과 현실 세상은 괴리가 컸다. 6개월 동안 방황하다가 그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월출산 중턱으로 향했다. ‘이 길을 다시 내려오지 않으리라’ 죽을 결심을 하고 어두운 밤에 산길을 올랐다. 바위 앞에 섰지만 두려움뿐이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 낸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마음의 병을 마주하고 치유하기 위해 충남 금산에 있는 ‘전원살림마을’을 찾게 된다. 그곳은 무소유와 영성 수련을 실천하는 공동체였다. 그곳에서 지금의 부인 ‘달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

-3월 호에 계속

“청애당 대박나라!”



청개구리요거트 X 애셋농장이 만드는 디저트카페

# 청애당 고산에 문 연 날



지난 2월 7일 고산우체국 맞은편에 ‘청개구리 요거트’와 ‘애셋농장’이 의기투합한 디저트 카페 ‘청애당’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원재료 공개, 느리게 만드는 건강함, 제로 웨이스트라는 세 가지 원칙을 내건 이곳은 정직한 먹거리로 지역과 소통하는 새로운 사랑방을 꿈꾸고 있다.

정식 개업 당일, 카페 내부는 축하하러 온 손님들과 주인장들이 한데 어우러져 유독 시끌벅적했다. 연신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고, 밀려드는 주문과 설거지에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날 청애당이 준비한 특별한 행사 덕분에 분위기는 더욱 유쾌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이 두 팔을 벌리고 밖을 향해 “청애당 대박나라!”를 크게 외치면 딸기우유나 요거트를 증정하는 행사였다. 쑥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방문객의 80%가 시원하게 합성을 질러 준비한 수량이 금세 동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청애당 주인장들 중 한 명인 송국현 씨는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곳을 넘어 이웃과 건강한 먹거리를 공유하고, 재미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꾸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 청애당은

- 주소\_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95 (고산우체국 맞은편)
- 영업시간\_ 11:00~18:00 (매주 화, 수 휴무)
- 문의\_ 010-3235-9945



2월 8일에 방문한 손님을 찾습니다!

## 생달기우유 꼭 드리고 싶어요!

비봉면 구하마을에 사시는 할머니를 찾아뵙러 가는 길 청애당에 들렀다는 30대 남자 손님.

할머니께 선물로 드릴 요거트 3병과 생달기우유 1병을 주문했는데, 주인장의 실수로 보냉박스에 요거트 3병만 담겨버렸다. 혹시 다시 오실까 봐 생달기우유를 따로 빼두고 기다리고 있다. 부디 재방문해 주세요! 아니면 이 손님을 아시는 분의 제보도 받습니다. ^^

가게 앞에 선 주인장 석재환, 송국현(오른쪽)씨

송국현 사장 1문1답

"얼굴 아는 단골이 생겨 행복한 요즘"

Q. 간단한 가게 소개와 정식 개업 소감

요거트를 만드는 '청개구리'와 딸기 농가 '애셋농장'이 협업한 디저트 카페입니다.

1년 전부터 꿈꾸던 매장인데,

예전에는 무인 위탁 판매로만 뵈던 '찐팬'들을 이제는 직접 대면하고 소통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Q. 고산시장에 자리를 잡게 된 특별한 배경

우리 제품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바로 이곳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익숙하고 작은 시장에서 먼저 인정 받아야

더 넓은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저만의 철칙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Q. 요거트 브랜드 이름에 '청개구리'가 들어가는 이유

어릴 적 별명이 청개구리였는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그렇게 불릴 줄은 몰랐습니다(웃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고 정겨운 이름이라

자연스럽게 요거트 브랜드에도 붙이게 됐어요.

Q. '청애당' 메뉴만의 차별화된 매력

신선함 그 자체입니다. 애셋농장과 콜라보한 덕분에

매일 새벽에 갓 수확한 생딸기를 우유 위에 듬뿍 올려드립니다.

가장 맛이 좋은 황금 시간대의 신선함을

바로 맛보실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자부심이에요.

Q. 앞으로 새롭게 선보일 메뉴 계획

현재 따뜻한 음료가 적은 편이라, 겨울 끝자락이지만

정말 맛있는 '밀크티'를 개발 중입니다.

드립 커피와 요거트 라떼에 이어

청애당만의 색깔이 담긴 따뜻한 시그니처 메뉴를 기대해주세요.

Q. 고산미소시장 이웃들과 손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청애당이 지역에서 재미있고 관계가 깊어지는

사랑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미있는 이벤트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세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끊임없이 즐거운 일을 벌이는 지속 가능한 가게로 남고 싶습니다.

MENU

영업시간 11:00 - 18:00 • 휴무일: 화/수



추천!  
★★★★★

6,500원

유기농 플레인요거트  
500ml



추천!  
★★★★★

6,000원

라씨 500ml  
(요거트음료)



9,500원

그릭요거트 300g



5,000원

라씨  
(요거트음료)



6,000원

핸드드립커피  
Hot



6,000원

핸드드립커피  
Ice



추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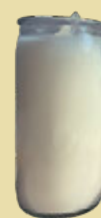
6,500원

생딸기우유



6,000원

요거트망고스무디



그라시아  
그릭요거트+라씨 6,000원



추천!  
★★★★★

요거트라떼  
5,000원

어머니를 보내며

말씀으로 오실듯한 어머니  
허전한 마음 가눌 수 없네

2026년 2월 12일 어머니가 88년의 삶을 마감하셨다. 또 하나의 박물관이 사라졌다. 어머니는 교회에서는 1938년생 황승림 권사였지만 병원의 이름표에는 1942년생 조순임



여사였다. 시기와 사연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찍 부모를 여의고, 친척 집에서 지내다가 결혼을 앞두고 고모부의 호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추측한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 생긴 청각장애로 약간의 대 인기피가 있으셨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남편과 결혼해서 2남 4녀를 두었고, 그 육 남매는 모두 가정을 이루고 잘 지내고 있다. 부고장에 올라간 자녀들이 증손녀 둘을 포함하여 31명이었으니 참 다복한 가정을 이루신 셈이다.

나는 손위 시누이가 넷인 큰 며느리다. 결혼 후 시부모님댁에 얹혀서 살기 시작했으니 어머니와는 28년 동안 고부지간으로 함께 살았다. 어머니는 2년 전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와 집에서 생활하시다가, 요양병원에서 3개월을 지내셨다.

2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참 특별한 경험이 됐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노년의 삶과 임종의 과정을 지켜보며 매 순간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다. 인지장애가 전혀 없었던 어머니는 대소변 수발을 하는 며느리에게 늘 미안해 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 그 표정이 지금도 생각난다.

나의 '시월드'의 중심에 존재했던 어머니가 가셨다. 시어머니가 가시면 며느리는 화장실에서 웃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숙제를 마감한 후련함이 그다지 크지 않다. 9년 전 시아버지를 보내드릴 때와는 사뭇 다르다. 허전하고 복잡한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고, 곳곳에서 어머니의 체취를 느끼고, 말씀이 찾아올 것 같다.

/전명주(고산 원산마을)

양생원과 일 년 열두 달



#윤대라 #artistDERA #울랄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이 양생원, 멍멍이 견재, 꼬꼬닭 함께 좌충우돌 우당탕탕 완주살이 11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dera/>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 좋은 곳에서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 질문이 있는 이달의 책

팀 잉골드 씬 | 김지혜 옮김 | 포도밭출판사 | 2024, 368쪽, 23,000원

책을 읽고서야 비로소 내가 애초에 잃어버렸던 말을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아마 그렇게 자기만의 인생 작품을 만나게 되고, 최애 작가가 생기는 일. '완두콩'을 재밌게 보는 사람들 중에 팀 잉골드(Tim Ingold)의 책들을 읽으면 잃어버린 말을 찾은 기분이 들 사람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책의 첫 표지에서부터 '걸기, 관찰하기, 이야기하기, 그리기, 쓰기의 공통점은? 모두 선을 따른다는 점이다'라는 매력적인 글귀로 사로잡는 책. 선(line)으로 만들어진 인류의 이야기, <라인스>다.

48년생 영국 인류학자가 선 하나에 꽂혀 탐구한 그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은 선 아닌 것이 없다. 말, 음악, 뜨개, 산책과 운송, 서예와 조각까지 만사 모든 일들이 선의 여정을 따르는 일이다. 사소하고도 장고한 인류사의 예시들을 하나씩 열거하며 낯선 개념들을 자신만의 언어로 설명해내는 일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결국 이 예시들이 하나의 사유로 도달한다는 점이 경이롭다.

산티아고 순례자가 순례를 마친 뒤에는 순례 이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듯이, <라인스>라는 책을 관통하게 되면 근대의 사고방식이 직선으로 짜인 세상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이 비인간들에게 초래한 일들까지도. 상대적으로 곡선의 사유가 자연스러운 동양의 사고체계로 읽으면 언뜻 당연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잉골드는 우리의 인식 속에서 선을 떠올릴 때 반듯한 직선을 떠올리게 된 연유, 뭐든지 최단거리나 가로지르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 그 사유의 근원을 찾아 올라간다. 나아가 앞으로 우리 존재는 어떤 선에 놓이고 각자 어떤 선을 만들며 살아가야 할지도 생각해볼 수 있게 답이 아닌 물음을 던진다. 누가 읽어도 자신의 이야기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없을 것이다. 새해맞이 일독을 권한다.

### 림보책방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6 2층

☎ 063) 717-7011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 매일설레

#80 사적인 발견



설레는 제주에서 그림 그리고 디자인한다.

흔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 291-8448

## 그리움을 추모하는 노래

###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26)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



QR을 스캔해보세요.  
음악이 재생됩니다.

원래도 한국 현대시의 대표작 중 하나인 정지용의 <향수>는 김희갑의 선율을 만나 성격이 조금 바뀌면서 유명세를 더해갑니다. 단순히 읽는 시가 아니라 한국인의 귀와 목에 붙은 공동의 기억이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동원과 박인수의 듀엣은 이 노래를 개인의 향수에서 세대의 향수로 확장시켜주기까지 합니다. 이동원의 대중가요적 서정과 박인수의 성악적 깊이와 진정성이 만나 사적인 그리움과 공적인 품격을 동시에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정지용의 시는 감각의 시입니다. “옛이야기 지를 대는 실개천”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 “비인 밤에 밤바람 소리” “서리 까마귀 우지랴”는 지붕 등, 이진 의미의 영역을 넘어 소리와 냄새의 세계로 확장됩니다. 김희갑의 곡 또한 이 감각을 설명하지 않고 머무르게 만듭니다. 선율이 한 번에 뻗지 않고 조금씩 올라갔다 가 멈추고 다시 젖어들듯 이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어쩌면 우리들 기억이 되살아나는 방식이 이를 닮았을 것입니다. 추억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돌아오니까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후렴구는 시나 노래 모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마법의 지점입니다. 그러나 미묘한 차이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꽤 강한 단정으로 읽히지만 노래에서는 탄식으로 들립니다. 시는 잊지 못하겠다는 것을 수사를 통해 적시하지만 노래는 사실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다는 가슴 속 비밀을 은근히 들려줍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잠시 멈춰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유독 좋아하고 또 잘 부르던, 제가 많

이 따랐던, 선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통증의학을 전공하셨지만 첼로 연주까지 할 수 있는 준 프로 음악가였습니다. 다른 한 분 역시 셰익스피어 전공교수였지만 대금과 거문고를 다룰 줄 아는 썬 음악 애호가였습니다.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그렇게 너그러운 분들이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서둘러 떠나셨을까?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어느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신던 곳”으로 그렇게 황망하게 떠나버린 것일까? 이동원과 박인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이 곡이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떤 희망을 말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 노래는 상실을 상실이라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달래줍니다. ‘괜찮아질 거야’가 아니라 ‘그리운 건 그리운 거야’라고 말해줌으로써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있어 그 분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듀엣이 만드는 두 겹의 층위가 이런 효과를 배가시켜줍니다. 이 노래를 혼자 부르던 대개 개인의 회상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둘이 교차하면 갑자기 차원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 안의 두 목소리, 예를 들면 젊은 날의 나와 꽤 긴 세월을 건너온 나, 아니면 떠나온 이의 마음과 남아 있는 이의 마음을 함께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어떤 오묘

한 구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죽음이 그냥 단절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어지는 삶의 한 부분임을 더 잘 느끼게 해줍니다.

이 시와 노래의 핵심 매력은 촘스럽지 않은 향수에 있을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자칫하면 금방 촘스러워지거나 눈물 찢는 감상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용 시인은 과장된 언어를 억제함으로써 품격을 유지했고 김희갑의 선율 또한 눈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슬픔을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두 선배 교수님의 중저음 바리톤 음색이 딱 그랬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시와 노래가 그리는 것이 터로서의 고향을 넘어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도 이 노래를 들으며 울컥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에 귀 기울이며 되새기는 것은 잃어버린 것들을 품고도 우리는 살아간다! 아니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모의 정에 이끌려 너무 과하게 새겼나요? 그러나 슬픔을 더 크게 키우는 노래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슬픔을 우리가 견딜만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의 힘이요 시의 효용이라 하겠습니다.

두 분 선배 교수님이 이동원과 박인수가 되어 함께 부르는 노래가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너머로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 분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차마 꿈엔들 잊힐 리” 있겠는지요?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켜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완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마을 소식

#### 완주군 공영 마을버스, 삼례도 운행 시작

2월 13일부터 약 2주간 삼례 방면 공영제 마을버스가 시범 운행되는데, 이 기간에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례 지선 8개 노선(30, 31, 32, 33, 34, 34-1, 35, 36)이 전주 시내버스에서 완주군 마을버스로 변경돼 운행된다.

완주군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공영제 운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동시에 노선 개편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 시간표를 안내하는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부하고, 마을 방송과 현수막 게시, 버스 안내 단말기 홍보 등 주민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례 지선 34번 버스

# 사색여행이 된 뒷산 나들이

농/촌/별/곡



차 남 호

설 연휴 마지막 날이 저물고 있다. 벼농사를 짓고, 그것도 농한기에 들어선 농사꾼에게 연휴며 공휴일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마는 ‘관계’를 생각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명절을 맞아 떨어져 지내던 피붙이들이 잠시나마 회포를 풀 수 있는 것은 연휴 덕분 아니던가. 그나마 차례 지내고 세배를 끝내자마자 서둘러 뿔뿔이 흩어지는 게 흔한 풍경이고 보면 그 끝 무렵에 묻어나는 씩씩함도 여간 아니지 싶다.

이런 씩씩함을 달랠 겸 동네 친구들과 고창 방장산을 등반하기로 했었는데 때마침 산불 예방기간이라 입산이 금지되는 바람에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일상에서 벗어나 바람이나 쐬려던 참이었는데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그래도 동네 뒷산을 오를 수 있으니 그것으로 아쉬움을 달래본다.

한 시간 남짓 뒷산 나들이는 산행이라기엔 심심하고, 산책이라기엔 제법 땀이 흐르는 행차다. 몇해 전 심혈관계 이상증세가 도지면서 유산소운동이랍시고 시작한 일이다. 한여름과 농번기를 빼고 매일은 아니라도 틈날 때마다 땀을 낸 덕분인지 지금은 증세가 다소 누그러졌다. 그러나 몸 쓰는 일을 싫어하는 기질이라 건강회복을 위해 쓴 약 먹듯 운동하는 게 달가울 리 없었다. 물론 무병장수를 지고의 목표로 삼은 건 더더욱 아니다.

돌아보면 ‘인생 제2막’으로 생태적 삶을 일궈보겠노라 귀농을 한 지도 이제 20년에 가깝다. 그 세월을 따라 날렵하던 것들이 많이 뭉툰해지고, 싱그러웠던 것들은 더러 덩뭉해졌을 것이다. 무엇보다 몸도 마음도 그만큼 무디어졌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제2막을 지나 제3막에 접어들 준비를 할 시점임을 절감하게 된다. 이른바 ‘노년’이라 불리는 시간. 노년기는 비단 건강문제에 그치지 않고 마지막 생애주기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점에서 얼마 전 우연히 손에 든 <나이들에 관하여>(도서출판 비잉)가 던지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저자인 루이즈 애런슨(미국 노인의학 전문의)은 이 책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과 진단을 제시한다. 노년기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듯 불행한 것만은 아니며,(실제로 청장년층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한다) 노년의 료서비스는 완치나 생명연장보다 인간 존엄과 삶

의 가치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죽음’을 바라보는 저자의 관점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의 통찰이 아니라도 인간은 늘 미완인 불확정적 존재이며 확실한 건 죽는다는 사실 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 일지 알 수 없지만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죽는다는 사실을 애써 회피하거나 망각하지 말고, 매 순간의 삶을 의미 있게 실현하려는 것이 하이데거가 전하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다.

지난 호에 ‘기력이 닿는 한 계속 벼농사를 짓겠노라’ 했었다. 늘그막까지 물질적 욕망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인 이는 없을 것이다. 설마 벼농사 안 짓는다고 산 입에 거미줄 칠 일이야 있겠는가. 그렇다면 인생 제3막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는 남은 삶을 아름답게 채우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서 나의 뒷산 나들이는 언제부터인가 ‘유산소운동’을 넘어서게 되었다. 몸을 움직여 땀을 내는 일보다 세계와 삶의 근원을 찬찬히 훑아보는 사색여행으로 바뀐 것이다. 그 시간은 이제 입에 쓴 약처럼 부담스런 운동이 아니라 손꼽아 기다리는 일과가 되었다.

공자 가라사대 조문도석사가의(朝聞道夕死可矣)라 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리. /비봉 염엄마를

## 완주군의회에서는

### 완주군의회, 설 연휴 복지시설 방문해 격려

완주군의회(의장 유익식)는 지난 2월 12일,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 기간 돌봄이 필요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의회는 ▲용진노인복지센터 ▲삼례노인복지센터 ▲드림사회서비스센터 ▲성경샘주간보호센터 ▲심청이효재가복지센터 등 지역내 5개 시설을 차례로 찾았다. 군의원들은 입소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고, 운영 상황과 어려움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시설 종사자들과의 간담 형식으로

진행돼,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군의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예산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유익식 의장은 “복지는 문서나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며 “군의회는 작은 불편과 건의도 놓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해, 돌봄이 신뢰로 이어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휴 기간에도 자리를 지키는 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완주가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다”며 “군의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완주군**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용규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 스 063-261-8448
- 홈 페 이 지 www.wandookong.kr
- 취 재 · 글 윤하나, 성다연
- 편 집 장혜영, 이운영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 심심한 완주 여기로 모이자!



어느덧 겨울의 마지막 2월. 건강에 유의하며 완주군 곳곳에 다양한 소식과 진행되는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 해 보자. 상시 일정은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심한 완주 사람들 고민하지 말고 여기로 모여라!

## 삼례 청년문화공간 '완충지대'

!아나바다 물물교환소!

오는 2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완충지대에서 '아나바다 물물교환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전주·완주에서 문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씨네 소사이어티와 삼례 청년공간 완충지대가 함께 마련했다.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서로 나누고 바꾸며 자원 순환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환 품목은 옷, 책, 취미용품 등 중고 물품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교환할 물건을 가져와 현장에서 자유롭게 바꾸면 된다. 가격을 흥정하는 방식이 아닌 참여자끼리 합의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소: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382 (신아빌딩 4층, 투썸플레이스 건물)

문의: 070-4113-777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월 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wanchungjidae

## 고산퍼머컬처 디자인코스 참여자 모집

고산퍼머컬처대학이 개교를 맞아 전주·완주 등 전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퍼머컬처 디자인 코스'를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지역 활동가와 귀농·귀촌인,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 프로그램으로 저렴한 참가비로 운영된다. 교육은 2026년 2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3시간씩 진행되며, 총 24강으로 구성된다. 모집 인원은 12명에서 25명 사이로, 최소 12명 이상 신청 시 개설되며 25명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교육 장소는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10에 위치한 고산퍼머컬처대학이다.

참가비는 회차당 2만 원으로 총 48만 원이며, 전액을 일시 납부할 경우 40만 원으로 할인된다. 접수 마감은 오는 2월 19일이다. 1회차 참가비 또는 전체 비용을 입금하면 참가가 확정된다. 입금 계좌는 농협은행(301-0194-6018-61, 예금주 온누리살이 사회적협동조합)이며 자세한 사항은 010-2815-157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제15회 운주면 정월대보름 맞이 쌀 나눔 모금행사

운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가 함께 주관하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제15회 정월대보름 맞이 쌀 나눔 모금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소외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모금은 2월 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후원 문의는 운주면행정복지센터 063-290-3685로 하면 된다.

## 창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따스한 봄이 기다려지는 2월. 시골극장 콩씨네와 함께"

시골극장 콩씨네 2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과 영화를 깊이 있게 해 줄 <저녁극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2월 21일 (토) 오후 2시	판타스틱 Mr. 폭스	애니	전체 관람가
2월 28일 (토) 오후 2시	프랜치 수프	드라마, 로맨스	12세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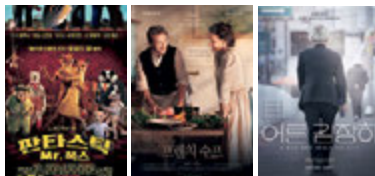
\* 영화를 깊이 있게 <저녁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2월 24일 (화) 오후 7시	어른 김장하	다큐멘터리	전체 관람가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 완주형 청년귀농장기교육 교육생 모집



완주군 귀농귀촌 협동조합이 '2026 완주형 청년귀농장기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 귀농을 꿈꾸는 청년이라면 주목할 만한 장기 교육 과정이 마련됐다. 생산부터 가공·마케팅·유통·판매까지 농업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다. 이번 과정은 애플망고와 오색토마토 품목특화 교육으로, 현장 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창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 기간은 2026년 3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6명 소수 정원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만 40세 미만(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으로 그린대로 필수 온라인 교육 (3과목·8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신청은 그린대로 홈페이지(www.greendae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063-261-3731로 문의하면 된다.

## 고산미소시장 '무지개 공방' 정식 오픈

고산미소시장 내 환한 온기를 품은 갤러리이자 화실 '무지개 공방'이 지난 1월 31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무지개 공방 박은미 작가는 "정신없이 바쁜 개업 준비 중에도 공간을 채우는 기쁨이 컸다"며, "지인과 이웃은 물론 옛 수강생들도 부담 없이 놀러 와 쉬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딸의 손길이 닿은 간판 아래 꾸러진 이곳은 북향의 공간을 작가의 감각으로 밝혀, 그림과 소품을 감상하며 머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심터로 조성되었다.

한편, 이곳은 향후 동네 청년 작가들과의 교류와 소소한 그림 클래스 운영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예술 거점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주소: 완주군 고산면 남봉로 134 고산미소시장

운영시간: 완주군 고산면 남봉로 134 고산미소시장

문의: 010-9847-0416



## 2026 꿈의 극단·무용단 '완주' 단원 모집

완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2026 꿈의 극단·무용단 완주'가 단원을 모집한다. 두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연극과 무용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함께 창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예술교육 과정이다.

접수기간은 3월 2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모집대상은 완주군 인근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동으로 완주군 거주 아동을 우선한다. 모집인원은 총 30명이다.

교육일정은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결과발표회를 포함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팀 063-262-3955으로 하면 된다.

## '하이'의 가족을 기다립니다

하이는 2022년 10월 입소해 현재 3살 체중 17kg의 중성화를 마친 수컷이다. 하이는 운순하고 사람 손길을 피하지 않으며 처음에는 낯을 가리기도 하지만 점차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하기도 하고 산책을 좋아하며 배변은 실내외 모두 가능하다.

웃는 모습이 예쁘고 순둥한 성격을 가진 이런 하이에게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사랑을 베풀어 줄 가족이 절실히 필요하다.

체중: 17kg

입양문의: 063-290-3248 (완주군청 농업축산과)



## 소양 주민공동체활성화 주민 소모임 모집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2026 완료지구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양 주민공동체활성화 주민소모임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 간 관계망을 확대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문제를 협동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주민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대상은 소양면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같은 유형의 중복 참여는 불가하며 다른 유형 사업에는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심사는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3월 24일 개별 통보한다. 선정된 소모임은 3월 25일 소양 상생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한다. 오전 10시 또는 저녁 7시 중 선택 가능하며 소모임별 2명 이상이 필수 참여해야 한다. 소모임 활동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30주간 진행된다. 기본 주 1회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총 20회 이상(월 2회 이상 필수) 운영해야 한다. 문의는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역량강화팀 063-905-5050으로 하면 된다.

## 소양면 환경반장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2026 완주군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소양면 환경반장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자원순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을 안에서 환경 실천 활동을 이끌어갈 '환경반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인원은 완주군 소양면에 거주하는 주민 10~15명으로 환경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26일까지이며 결과는 2월 27일 개별 안내한다. 신청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하고 운전이 가능한 주민은 우대한다.

교육은 3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6주간 총 24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장소는 소양 상생복지센터다.

교육 내용은 ▲자원순환 기초 '쓰레기 이야기의 시작' ▲자원순환 심화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사회' ▲자원순환 스토리텔링 '내 말로 설명하는 환경 이야기' ▲자원순환 강의 설계 및 연습 '마을 강의 준비하기' 등으로 구성된다. 세부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문의는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역량강화사업 063-905-5050으로 하면 된다.



## 유휴열미술관&카페르모악 2월 임시 휴관

구이면에 위치한 유휴열미술관&카페르모악이 새로운 전시 준비와 재충전을 위해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이번 휴관은 관람객들에게 더욱 완성도 높은 예술 경험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정비 시간으로 마련됐다.

휴관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미술관과 카페 시설 전체 이용이 제한된다.

재개관과 함께 선보일 다음 전시는 'Art Moak\_작은 그림展 BLACK'으로, 오는 3월 3일 화요일부터 3월 29일 일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유휴열미술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대표번호 063-221-8771로 문의하면 된다.

## 2026년 상반기 '나도 완주강사'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완주군에서 2026년 상반기 '나도 완주강사'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인적 자원을 활용해 군민들에게 서플댄스, 영어회화, 에어로빅, 아로마테라피 등 다채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모집 기간은 3월 3일 화요일까지며, 완주군민을 비롯해 완주군 소재 직장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완주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이메일 ok79@korea.kr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평생학습팀 063-290-3886으로 하면 된다.

## 제24회 완주삼레딸기대축제

제24회 완주삼레딸기대축제가 오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완주군 삼례읍 일원에서 열린다. 완주삼레딸기대축제는 삼례의 대표 농산품인 딸기를 중심으로 생산·유통·체험·관광을 연계해 구성된 체험형 축제다.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삼례를 대표하는 농업·문화관광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축제 기간 동안 딸기 수확 체험을 비롯해 딸기 가공식품 및 디저트 판매, 지역 먹거리 부스, 주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공연 및 부대행사 등이 다채롭게 운영된다. 방문객 체류 시간을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로 기획됐다.

메인 프로그램으로는 딸기 퍼포먼스, 딸기꿈나무자랑대회, 개막식 및 축하공연, 예술공연, EDM파티 등이 진행된다.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딸기 판매장, 딸기 체험, 어린이 놀이터, 베이커리존, 푸드존, 스탬프 이벤트 등이 마련된다. 딸기 스페셜티 커피, 딸기 테라리움, 딸기 풍선, 딸기 비누 만들기 등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 봉동보건지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완주군이 가족 건강관리의 핵심 세대인 '엄마·아빠 세대'를 지역 건강지킴이로 양성하기 위해 3월부터 봉동읍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플댄스와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가족 단위 건강 가족이 함께 운동하고 건강을 챙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준비했다.

봉동보건지소에서 지역주민 15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주 2회 서플댄스를 통해 신체활동을 늘리고 월 1회 영양·정신건강·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분야별 전문 보건교육 특강을 수강하게 된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스트레스 수준 등을 사전·사후 측정해 체성분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개인별 건강수첩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상담도 함께 제공해 실질적인 건강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2월 27일까지며 신청 및 문의는 완주군보건소 북부건강지원팀 063-290-3024으로 하면 된다.



## 꿀벌 생태·정원 기록 '사계양봉가' 1기 모집



완주군 고산면에서 꿀벌의 생태를 관찰하고 밀원 정원의 사계절을 기록하는 전문 워크숍 '사계양봉가 1기' 'Bee & Garden Fellowship'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단순한 양봉 기술 교육을 넘어 정원 가드닝과 인문학 적 기록을 결합한 전문 심화과정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양봉을 배우고 실천할 참여자 12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20회 진행된다. 매일 2-4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되며, 10월은 1-3-5주, 12월은 3주차에 진행된다. 첫 수업은 3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교육은 완주미래행복센터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220만 원이다. 모집 마감은 2월 28일까지이며 선발은 지원서 접수 후 서류 심사와 3월 2일 전화 또는 비대면 인터뷰를 거쳐 3월 3일 최종 발표한다. 신청은 온라인 링크 <https://forms.gle/LLpY7YtYrugpYBkQA>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979-9977로 문의하면 된다.

## 2026 완주장애인합창단 '꽃' 단원 모집

완주문화재단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넓히고 더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접하며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 완주장애인합창단 '꽃' 단원을 모집한다.

완주장애인합창단 '꽃'은 2023년 창단된 장애인 합창단으로, 정기 연습과 공연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현장에서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있다. 지난 2월 2일에는 지방자치인재원 장기교육과정 입교식 축하공연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모집은 만 18세 이상 완주군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음악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합창 활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17일까지이며, 선발된 단원은 3월부터 정기 연습과 공연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문화예술진흥팀 063-262-3955으로 하면 된다.



제 24회 3/6 금, 3/7 토, 3/8 일  삼례농협 뒤 공영주차장

# 완주삼례딸기대축제



**이모브라더 김연자**



**생어슬라이터 김완준**



**주최·주관** 완주군 WANILGUN **삼례농협** 완주문화재단 완주DMO **행사후원** 농업경영인연합회 우식대학교